

구제역 예방, 올바른 백신 접종부터

농진청, 전국 일제접종 시기 맞아 "백신, 2~8도 냉장 보관... 1마리 1바늘 원칙 지켜야"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장반기 구제역 백신 전국 일제 접종 시기(4월 1일~5월 12일)를 맞아 올바른 접종 방법을 소개하며, 빠짐없이 접종해 줄 것을 19일 당부했다.

전국 일제 백신 접종은 농가별 개체별 접종시기가 달라 접종에서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연 2회(4월, 10월) 소·염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1월 이후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지만 최근 중국, 베트남 등에서 구제역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백신 접종을 통해 백신 항체 양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항

체양성은 백신 접종 가축에서 항체가 형성된 비율로 소 80%, 염소 60% 미만이면 과태로 부과된다.

구제역 백신 접종 후 원활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에 따라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주사바늘은 1마리 1바늘(1주 1침)을 원칙으로 한다. 하나의 주사바늘로 여러 마리를 접종하면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주사바늘 끝이 뭉뚝해져 가축의 근육 조직을 손상시키고 염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장 내 존재하는 질병을 확산시킬 우려도 있다.

백신은 2~8도(C) 냉장 보관하고, 특히 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접종 30분전 냉장고에서 꺼내어 상온에 보관하고, 사용 전 내용물이 잘 혼합 되도록 흔들어 사용한다.

공수역사 등 외부인이 방문하면 가축이 낯선 상황에 흥분할 수 있으므로, 접종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구제역 백신 접종 후에는 면역 형성 과정에서 체온이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으며, 급성패인 반응 여부를 관찰하고 수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백신 접종 시기에는 가축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사육환경과 사육관리 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예방 접종은 질병에 감염되기 전에 미리 항원(비활성 병원체)을 주입해 면역물질인 항체를 만드는 것인데, 가축이 아프면 이상 면역반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농장 내의 소독, 사람과 차량의 농장 출입관리, 농장 울타리 정비 등 차단 방역 조치도 철저히 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허태영 가축질병방역과장은 "구제역은 철저한 예방접종을 통해 차단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모든 농가가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협업, 도내기업 수출 '꽤거'

강산명주 중국 유통기업 준성과 전통주 계약 체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전북 기업의 중국 수출 계약소식이 전해져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전북도 중국사무소(소장 이지형)는 지난 15일, 부안군 소재 기업인 (주)강산명주와 중국 유통회사인 상하이준성국제무역유한공사(이하 준성)간 뽕주와 복분자주 수출·수입계약이 체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주)강산명주는 올해 첫 60톤 규모의 물량을 수출할 수 있게 됐으며, 준성이 향후 다양한 마케팅을 계획하고 있어 물량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계약은 준성이 코로나19 여파로 건강에 부적 관심이 많아진 중국내 한국인과 중국인의 주류 소비성향 추세에 맞춰 한국 전통주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후 전북



도 중국사무소와의 연계를 통해 성사됐다.

이지형 전북도 중국사무소장은 "코로나19로 물품교역과 통관 등이 평소보다 불편한 시기에 전북 제품에 관심을 가진 바이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좋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어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전북 제품이 중국내에 더욱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효상 기자

스탬프 광! 선물이 광!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스탬프 이벤트' 30일까지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모바일 생활금융 플랫폼인 올원뱅크에서 '스탬프 광! 선물이 광! 스탬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올원뱅크의 생활 컨택(농협몰, 프리마켓, 교통카드, 기프티쇼, 생활플러스)에서 획득할 수 있는 스탬프 5개를 찾은 후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총 83명을 추첨해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 프로(3명), BHC 뿌링클 모바일 쿠폰(30명), 스타벅스 디지털 모바일 쿠폰(50명)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중복 참여가 가능해 매일 응모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이와 함께, 이벤트 기간 내 올원뱅크에서 농협몰에 신규 가입한 고객 전원에게 농협몰 장바구니 쿠폰(5,000원)을 제공한다.

/김윤상 기자

"식량안보 콤비나트 설립,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야"

aT김춘진 사장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국제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한·중·농·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춘진)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식량안보 콤비나트(combinate)' 건설 협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춘진 aT 사장은 지난 15일 새만금 식량안보 콤비나트 건설 등을 골자로 한 식량안보 종합계획을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김 사장은 "광활한 새만금 간척 취지를 살리고 풍력·조력 등 친환경 신재생 청정에너지를 활용하는 aT의 식량안보 콤비나트 설립은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총리는 "식량안보는 국가 중점과제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안정적인 식량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aT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식량안보 콤비나트는 국내에서 생산된 식량자원의 저장·가공·비축은 물론 해외 수입자원의 비축이 한 곳에서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식량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집적시설이다. aT는 이날 중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

(TF)팀을 구성하고 국가 식량자급률 제고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aT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별도 구성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19년 기준 45.8%로 매년 하락하는 추세이다. 사료용을 포함한 전체 곡물자급률은 21% 수준으로 곡물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 특히 코로나19로 주요 곡물수출국들이 수출제한조치를 시행하면서 국내에서도 국가 차원의 공공비축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우리 주변국들은 이미 체계적인 공공비축정책을 시행 중이다. 중국은 중국저방량관리총공사를 통해 식량주산지에서는 3개월 이상 주산지에서 6개월 이상 소비량을 비축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일본은 쌀 100만톤, 밀 23만톤, 기타 사료곡물은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1개월분을 비축하고 정부가 1개월분을 추가로 비축하고 있다. 쌀 소비 전량을 수입하는 싱가포르의 경우, 모든 쌀 수입업체는 사전확약 수입물량을 신고하고 백미는 수입물량의 2배를 비축하도록 하고 있다.

김춘진 aT 사장은 "전염병 발생 이후 위기 등 곡물수급이 어려운 비상상황에 대비한 강력한 공공비축 정책이 시급하다"면서 "장기적으로 식량안보 콤비나트에 곡물메이저의 하역시설과 물류창고 시설을 유치한다면 우리나라가 동북아 식량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 16일 오후 3월 정식 출범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산업 육성 '맞손'

전북은행, 탄소산업진흥원과 협약 체결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지난 16일 오후 3월 정식 출범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은행 본점 9층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방원혁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서한국 전북은행장 등이 참여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대한민국 탄소산업 육성·발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자 설립된 기관으로, 탄소 융·복합 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미래 선도형 산업생태계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산업의 육성과 발전과 더불어 탄소기업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전북은행

은 주거래은행으로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및 탄소기업들에 원활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북은행 서한국 은행장은 "지역 거점 기관으로 대한민국 핵심전략 탄소산업의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협약을 통해 탄소기업 지원과 육성에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하이트진로, 신입사원 채용

주류시장 성장동력 마련

높은 경쟁을 뚫고 입사한 하이트진로 2신입사원들이 현업에 배치됐다.

하이트진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얼어붙은 채용 시장을 녹이고 젊은 인력을 보강해 100년 기업으로서 제 2의 도약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고자 2021년 대졸 공채를 모집, 최종 선발했다.

하이트진로 신입사원들은 지난 1월 중순부터 모집하여 최종 17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인재들로, 국내외 영업은 물론 마케팅, 생산, 연구소 등 전 부문에 걸쳐 선발됐다. 하이트진로 신입사원들은 최종합격후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간 회사와 주류시장에 대한 입문교육을 진행했다. 또, 지난 5일부터 일주일간 영업직은 생산 업무, 생산 및 관리직은 영업 현장을 교차 체험했으며, 이는 영업과 생산 현장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으로는 배치된 부서에서 실무교육을 받으며 역량을 펼칠 계획이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신입사원 채용을 통해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응, 시장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등 경쟁력을 더욱 키워나갈 계획이다. 사회적으로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축소된 채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이트진로 신입사원 권귀섭 씨는 "영업사원으로 활동하며 맥주 부문 상승세에 박차를 가해 많은 지역의 매장 내 테라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젊고 참신한 '공간정보분야 인재' 키웁니다"

LX국토정보교육원, 응용 소프트웨어 전문가 과정 교육생 6월 2일까지 접수



LX국토정보교육원이 공간정보산업을 이끌어갈 젊고 참신한 인재 발굴을 위한 공간정보 응용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LX국토정보교육원 제공)

LX국토정보교육원(원장 윤동호)이 공간정보산업을 이끌어갈 젊고 참신한 인재 발굴을 위한 '공간정보 응용 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 창의인재양성 계획,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인적자원개발혁신사업'으로 구성된 이번 교육의 정원은 30명이다.

공간정보산업 분야의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졸업자·예정자(취업이수)라면 오는 6월 1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지원(http://bsxdiuor.kr)이 가능하다.

교육생은 서류·면접심사로 선발되며, 최종합격자는 6월 18일 발표한다. 합격자 교육은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6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공간정보아카데미에서 실시된다.

교육과정은 공간정보 기초이론, 자바 프로그래밍, JDBC, 지도API 등 기본프로그래밍을 토대로 한 실무교육과 팀별 프로젝트 발표로 진행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 수료생에 한해 일부 훈련수당도 지급한다. 특히 수료생에게는 한국국토정보공사 협약기업에 우선 취업되는 특권이 주어진다.

윤동호 원장은 "공간정보아카데미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다방면의 인재 양성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며 "젊은

로도 다양한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공간정보산업을 이끌어갈 참의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간정보아카데미는 취업예정자격을 통해 공간정보 관련분야의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배출했으며 현재까지 관련업체에 90% 이상의 취업률을 기록한 바 있다.

/김윤상 기자

교육과정은 공간정보 기초이론, 자바 프로그래밍, JDBC, 지도API 등 기본프로그래밍을 토대로 한 실무교육과 팀별 프로젝트 발표로 진행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 수료생에 한해 일부 훈련수당도 지급한다. 특히 수료생에게는 한국국토정보공사 협약기업에 우선 취업되는 특권이 주어진다.

윤동호 원장은 "공간정보아카데미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다방면의 인재 양성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며 "젊은

/김윤상 기자